산돌

■ 사순절 종려주일/2014년 4월 13일

'산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며 그리스도" 라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발간합니다.

| 펴낸이,펴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756-7707
Fax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밭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찬란한 종려주일의 아침"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다. 이 날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다면 종려주일,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어떤 왕일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통과 고난과 억압을 해방하실 왕, 이스라엘을 다시 찬란한 시대로 이끌어주실 왕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로 환호하였다.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과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보아도 그 환호가 얼마나 예수님의 삶과는 거리가 먼지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생애를 완전한 예배라고 한다. 예배는 말씀의 예전과 성찬의 예전으로 나뉘는데, 이 예배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확립된 것이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말씀예전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 성찬의 예전의 근거로 확립된 사역들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 사역에 중심성이 두어진다. 한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는 사건은 예배의 절정이요, 모든 예배를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예배의 절정으로서 그리고 모든 예배의 종결이자 요약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께서 사신 생애를 따라 살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예배 공동체라고 부른다.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나의 생애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의 모범이고 또 기준점이다. 예수께서 사신 삶을 내가 살고,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하고 예수께서 느꼈던 느낌을 내가 느끼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종려주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세상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라는 권력,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심판하는 왕으로 입성한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왕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면 가장 어둡고 초라한 날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활의 아침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종려주일, 예배로 모인 아침이다.

에스겔서 18 : 1 - 4, 21 - 32
갈라디아서 2 : 15 - 21
누가복음서 23 : 39 - 43

사순절 절기를 상징하는 색은 붉은 색에 가까운 보라색입니다. 성경에는 자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는 성경의 증언이 있듯이, 자색은 전통적으로 왕의 색입니다. 예전에는 소라에서 추출한 천연재료로 만든 굉장히 비싼 염료로 염색해서 귀했던 색입니다. 바울의 선교 비용을 지원했던 루디아라는 여자의 직업이 자색옷감 장수라고 나오는데, 아무나 황제의 색깔인 자색옷감을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고 패션업체의 회장급 정도 되는 여자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황제의 색인 자색을 기독교에서는 대림절과 사순절의 고난을 상징하는 색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뜻으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세상의 황제들은 고난을 불러오는 악한 인간들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선한 황제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셨다는 뜻이겠습니다. 진실한 황제의 길이란 다른 사람을 섬기되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고난까지 함께 하는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애도하는 것은 자색 옷을 입고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신 예수님을 비하하는 쓸데 없는 짓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갈 때에 길가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눈물바다를 이루며 동정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눅 23:28) 예수님은 슬픈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이야말로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을 결코 애도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리석은 처지를 두고 애도하십시오.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사순절에 애도하며 슬픈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악착같이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순절에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참 예수님이 안 됐다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계신다면, 여태까지 저한테 배운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그 길이 그렇게 안타깝고 슬픈 길이요, 가서는 안될 길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길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평생의 소원으로 삼는 길이올시다. 사람이 다치고 병들고 죽는 일은 인생 다반사입니다. 인간이 살고 늙고 병 들고 피 흘리고 다치고 죽는 일은 인간의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흔한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빗대어 애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애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애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당신들의 그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결코 애도 받지 않아야 할 삶의 자리,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애도하는 그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통해 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무리 통곡을 해도 아깝지 않은 삶의 자리, 곧 영원한 생명인 사랑보다 죽음이 앞선 자리, 기쁨과 감사보다는 괴로움과 자랑이 앞선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그 쪼잔한 삶에서 벗어난 기쁨과 감사가 있는 평화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천의 필생의 소원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지 않는다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쪼잔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웃으며, 예수님의 자리를 보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웃으며, 당신의 자리를 보고 울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황제의 색깔로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1년 365일 내내 황제의 색을 걸치고 로마 황제보다 더 훌륭한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황제의 색인 자색은 사순절의 색깔이 아니라 교회의 색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자색 옷을 걸친 사람들의 클럽입니다.

누구나 자색 옷을 걸쳐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색 옷을 걸친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는데, 요즘엔 다른 말로 부릅니다. 둘이 만나면 G2, 셋이 만나면 G3, 여섯이 만나면 G6, 한국이 들어가면 G20입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자색클럽입니다. 그 클럽에 들어가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발발 기고 안달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클럽 만찬에 초청장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패션감각이 좋아도 그 격에 맞는 드레스코드를 맞춰야 입장할 수 있듯이, 교회는 자기가 왕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잔칫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아무나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코드가 안 맞으니까 다 내쫓았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코드가 엄격한 곳입니다. 교회는 자색 옷을 걸친 황제들을 키우고 황제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로마 황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빨리 황제가 되시거나 그만 두시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교회는 오갈 데 없는 인생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친구 따라오는 곳도 아니고, 누구 면 세워주려고 오는 곳도 아니고, 친구가 좋아서 붙어있는 곳도 아닙니다.

제가 걸친 이것을 스톨이라고 하는데 소 멍에입니다. 황제의 색깔이라는 자색 스톨 그 자체가 멍에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교회를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에 온 우주의 황제, 온 지구의 황제, 온 인류의 황제로 그 격에 맞게 그 황제의 길을 보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으로부터 예가교회는 굉장히 실용적인 교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럭저럭 살기에는 무애무탈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먹이기도 하고, 이것 저것 하면서 재미 있고, 애도 같이 키우니까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와 싸우는 것이 일인데, 주말과 방학마다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 나름 서로 그리워하고 반가워하니 고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뭔가를 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으니 나름대로 매우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용성에 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고 하면,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도, 똑바로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갈 2:16) 성경을 곡해해도 분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악하기 그지 없으며, 성경대로 말하자면 악마 그 자체입니다. 참으로 악하기 짝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악마 같은 주장입니다. 여러분 머리 속에 혹시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용서 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가운데에 천당 간다' 고 약간이라도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교회에서 떠나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도자이고, 믿음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거니와, 기독교 세간에 떠도는 '사랑하지 않아도 천당 간다' 는 말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내 죄를 위한 길이고, 그래서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의 다음 구절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들이대며 주장하는 바는 입으로 나불거리기만 하면, 마음만 믿으면, 행동하나 없어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주장 역시 악마나 할 소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순절 아침기도회에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뒤에 있는 일곱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만 하면 됩니다. 악의 실재가 바로 나의 몸뚱이입니다. 이 악덩어리의 몸뚱이와 같이 살기 싫어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악 덩어리인 몸뚱이와 같이 살기 싫고 이 몸뚱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서 훌륭한 황제들의 말은 믿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황제들이 예수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누가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무슨 G20랍시고 줄줄이 서있는 국가 지도자들을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끼었으면, 내 남편이 저 자리에 있으면, 내 아내가 저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도 그 길이 멋있다고, 그래서 꼭 흉내라도 내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훌륭한 길이지만, 예수님이나 가실 길이고, 나는 갈 필요 없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소망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싶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모든 선택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 모든 에너지를 한 문제에만 집중하면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이 자고 싶으면 잠 자는 것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춘곤증으로 정말 졸려서 자고 싶으면, 누가 뭐라 하든, 2박 3일이 되었든, 3박 4일이 되었든 잡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만약 하루에 20시간을 자고 싶은데, 이렇게 많이 자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 세 개씩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 했으니 거짓말은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소리를 내고, 그런 문장을 읊조리고, 목숨은 안 걸고 내가 그것을 믿는 척 한다고, 그것이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로마서 7장에는 악에 대해서 나오고,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우리는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영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육신, 몸뚱이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끊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돌이키는 은총은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근본이 죄 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뚱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온갖 악 중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은총도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험상궂은 인상에 칼을 든 사람과 마주쳤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무서워서 그 사람을 피해갈 것입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그런 험상 궂은 사람이 양 옆에 와서 앉고 한 사람은 내 앞에 섰다고 하면, 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런 험상궂은 나쁜 놈들이 여러분의 몸뚱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평생 애지중지하면서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런 악을 여러분의 몸뚱이에서 볼 수 있어야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아침기도회에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뒤에 있는 일곱 번째 '악에서 구하소서' 만 하면 됩니다. 악의 실재가 바로 나의 몸뚱이입니다. 이 악 덩어리의 몸뚱이와 같이 살기 싫어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악 덩어리인 몸뚱이와 같이 살기 싫고 이 몸뚱이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는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그 영으로 몸뚱이를 다스려 내가 몸뚱이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고, 그것으로 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내 몸의 주인으로 살 것인지, 내 몸뚱이를 섬기며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몸뚱이의 종으로 사는 것이 싫어야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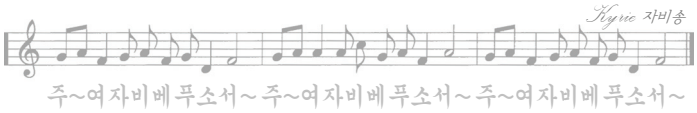
사순절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을 몸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기도가 간절해지도록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사람을 죽일 의도로 매복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몸뚱이가 바로 그런 몸뚱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 놓고도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는 몸뚱이입니다. 이렇게 악한 몸뚱이와 사는 것이 너무 싫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으로, 차리리 내 몸뚱이가 죽기를 바라는 정도가 되어야 교회에서 사는 격이 맞는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기 동안 여러분은 그렇게 쪼잔하고 비참한 몸뚱이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사는 악한 삶을 버리기를 기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되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고난까지 함께 하는 황제의 길,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화의 길을 걷는 황제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자색 옷에 걸맞는 황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빌립 이종진: 찬미님 집 거실등을 바꾸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일대일 만남을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가족원에게 사랑과 감사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가족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가족모임에 빈대떡을 준비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광야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가족들에게 격려 문자를 보내고 미리내님 야채도시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이 김현정: 보물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보물 서보람: 준비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텃밭 가꾸기를 할 때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에스더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고 텃밭활동을 잘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토요일 텃밭 가꾸기 활동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어울 최재민: 보물님과 일대일 만남 형식으로 이메일 쓰기를 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매일 말씀을 읽고, 가족에게 문자를 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초청자를 위한 저녁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등대 이택정: 카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주 3회 이상 가족들과 만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주기도로 기도문 적기를 가족들이 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여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독립군님에게 파김치를 선물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준비하여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교역자 섬김 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준비하여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여 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사랑님께 감사의 마음을 편지에 담아 표현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초청과 기쁨 주간 가족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초청과 기쁨 주간 장소준비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새벽기도회 때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새벽기도회에 고구마로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새벽기도회 교통비 지원헌금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안부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아모님께 반찬을 선물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가족 한 명에게 전화, 두 명에게 감사문자를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교역자 섬김 주간 활동을 위해 매일기도, 성경읽기, 호흡기도를 하고 카톡과 전화로 가족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가족모임 사진을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가족모임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모임 준비를 돕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가족모임에 마실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름 김미경: 교역자섬김 주간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려주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18편 1-2, 19-29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첫 기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나라임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사신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늘이 저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즐거이 따르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3-4 / 1-2 / 3-4
1-3 / 4-5 / 1-3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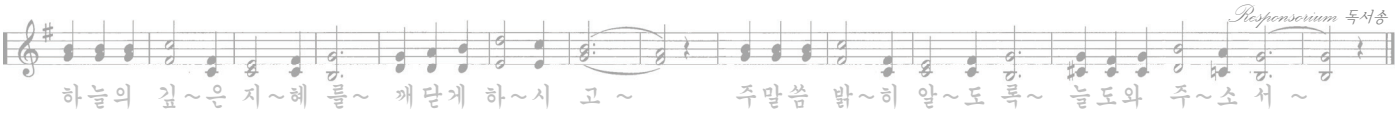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18편 1-2, 19-29절
소리 내어 천천히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 13 회

개관(10)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 는 결정사항은,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충격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고 주장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거짓신도' 라고 꾸짖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창17:14)

사실, 창세기에 할례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이 꼭 '육체의 할례'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까닭은 신명기가 '육체의 할례' 를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고, '마음의 할례' 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신10:16)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신30:6)

신명기에 따르면, '마음의 할례' 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할례이다. 신명기는 창세기의 할례에 대한 가르침의 본질이,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이방인들과 구별하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도록 하는데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라는 의식행위는 그 의식행위 자체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행위가 지향하는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았다' 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형식은 내용이 없는 죽은 형식이다. 물론, 형식이 없는 내용도 없고, 내용이 없는 형식도 없다. 그러나, 무게 중심은 '내용' 에 있다. '내용' 을 보전하기 위해 '형식' 이 필요한 것이다.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면, 그 형식은 폐기되고,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형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형식이 내용을 전혀 담보하지 않고 있는데도, 형식을 고집하였다. '육체의 할례' 를 받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마음의 할례' 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다윗 사후에 솔로몬 왕의 덕분으로, 성전의 권한을 장악하게 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육체의 할례' 를 중시하였다. '육체의 할례' 가 강조되는 까닭은, 그 할례라는 제도를 성전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할례' 는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이방인들과 구별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성전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성전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다. 즉, 사독계열의 제사장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나오는 것이다. 이 제사장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도 끊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할례의 문제가 그 본질적인 의미로부터 벗어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문제로 발전한 것이다.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도 그가 사독계열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인지, '마음의 할례' 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육체의 할례' 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겔44:9)

반면에, 다윗왕 사후에 솔로몬에 의해 축출된, 사독계열과 쌍벽을 이루었던, 아비가일계열의 제사장 출신인 예레미야는 '육체의 할례'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할례의 본질이, 남근의 표피를 잘라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선택적인 표현인 것이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렘4:4)

예레미야에 따르면, '주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육체의 할례'에 대하여는, 상당히 풍자적인 표현을 쓰면서, '할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곡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렘6:10)

한글 번역에서는 '귀가 막혀'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사본에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로 되어 있다. 할례를 귀에다 받는다니, 이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가? 그리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에 의하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육체는 신체의 표피를 모두 벗겨낸다고 해도 할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육체의 할례'만 받은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렘9:25)

에스겔에게는 사실 할례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할례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속한 예언자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배제된 예언자의 확연한 입장차이다. 이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의 역할에 의존하는 입장과 의존하지 않는 입장의 차이인 것이다.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진 뒤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지만, 그의 표현 속에는 여전히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그리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 만큼 할례에 대해서도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만으로도 '신성'(divinity) 확보할 수 있다면야, 성전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 다 신성해질 수 있겠지만, 토라 어디를 보아도, 그런 건물에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발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토라는 웅장한 신전건물이나 제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야훼 하나님은 돌을 깎아서 만든 제단이든 신상이든 모두 싫어한다. 야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 뜻은 예수님과 바울이 정리한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인 것이다.

바울은 토라와 토라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전통에서 '할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미 내용을 상실하고, 더럽혀진 형식을 보존할 아무런 까닭을 찾지 못하였다. 아마도, 바울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육체의 할례'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육체의 할례'는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것이다. 육체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아마도, 바울은 '육체의 할례'는 이제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이 더 낫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울이 육체의 할례만 받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의기양양했던 유대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활동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건재해 있었다. 이는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즉 사두개파들이 아직 유세를 떨치고 있는 때인 것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마당이니, 그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노력은 더욱 컸을 것이다. 그만큼, 할례에 대해서도 완고한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즉,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육체의 할례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의 힘도 커져갔던 것이다. A.D. 70년 제1차 유대독립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결사항전으로 싸웠던 까닭도, 로마 당국이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바울시대에는 성전의 위용이 극에 달해있던 시대이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죽음을 자초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가 탄생했다. 그런데, 교회 초기에 유입된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향 하에서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많았다. 성전이 아직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의 핵심 가르침에 해당하는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교회 밖의 이념문제가 교회내의 문제가 되고, 교회들 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치이다. 한국교회에서는 '빨갱이'라고 하면 바로 거부감을 느끼는 교인들이 대다수가 아니던가? 교회 안에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한 교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관한 교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 있었으니, 성전과도 얼마나 가까이 있었겠는가? 그 만큼 성전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견지하고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할례에도 적용한 것이다. 이는 또한, 토라와 토라에 철저히 기반했던 예언자들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다.

성전은 건물인가?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그렇다면, 할례는 육체의 할례인가? 아니다. 성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가리킨다. 토라의 표현을 빌자면, 이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바울의 눈에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교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즉, 거짓 교설을 유포하는 거짓 교사이거나 거짓 신도인 것이다. 구원은 육체의 할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토라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은 이를 특히 한 마디의 계명으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토라의 으뜸이며, 핵심이다. 여기에 기반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인 것이다.

바울이 할례에 대해 보여준 입장은, 그가 그의 혈통적 정체성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벗어났는가를 보여준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잘나가는 유대인 집안의 출신이고, 뛰어난 유대인 학자이다. 게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다. 한마디로, 육체적으로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좋은 것은 다 갖고 있는 셈이다. 머리 좋고, 집안 좋은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할례와 관련해서 보여준 입장은, 그가 철저하게 그의 육체적 혈통을 버렸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곧 자기의 가족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와 무관한 것이다. 그것이 설령 자기의 혈통이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하는 사람은 아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만들어진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종족의 탄생을 뜻한다. 바울은 바로 교회가 새로운 인류이고, 새로운 종족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철저하게 이전의 민족적, 혈통적, 계급적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류의 대열로 뛰어들었다. 교회는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며,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다. 바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소식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새로운 인간의 길, 즉,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에 함께 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이와 같은 바울에게 '육체의 할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일은, 그가 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린 세계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만큼이나, 역겹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영향력 있는 사도들, 게바(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여전히 '복음의 진리'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확인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겠는가?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향해서 먼 여행길을 떠난 것은 더 이상 쓸데없는 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바울은 그의 육체에 얽힌 관계들을 잘라내 버렸는데, 그것을 잘라내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입장을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바나 바나바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즉, 성전의 영향력, 육체의 할례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의 영향권에서도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다.

디모데를 전략적으로 할례 시키는 바울의 행동으로 보아서는,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구현하기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움직인 것이 아닐까?

이제 바울의 기반은 예루살렘도, 안디옥도 아닌,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의 든든한 기반이 된 것이다.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적인 기반일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믿음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심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초기 선교 대상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는 바울이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바울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별 의미가 없게 된 마당에, 마냥 유대인 회당만 돌아다니며 활동했을까?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할 무렵은 바울이 활동한지 10년 정도 된 시점인데, 그 때에도 여전히 유대교 회당만 돌아다니며 활동했을까?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활동할 때에는 분명 성전이나 할례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이는 복음서가 '성전'을 주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고, 유대인들과 관련된 바울의 논쟁이 '할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바울은 성전이나 할례와 관련한 논쟁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것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육체의 할례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논증을 펼쳤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했던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믿음'의 맥락을 무시하면 곤란하다. 바울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맥락이 무시될 때, '믿음'은 심리적인 현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육체에 얽혀 있던 모든 관계, 혈통적, 민족적, 계급적 관계를 결연하게 끊어버리고,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 새로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개개의 성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 세상에 속한 가족, 이 세상에 속한 아들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를 어찌 심리적인 의존 현상으로 물타기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초기에는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그리고, 전혀 지인도 없고, 자기 기반도 없는 낯선 곳에 갔을 때도, 유대교 회당을 먼저 찾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의 경우만 보아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서, 다른 교우의 집에 거점을 잡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린도 경우만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서의 활동만 보아도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거나 회당 사람들로부터 피신하는 장면들이 있다. 이는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선교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요한 일로 삼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던가?

바울의 초기활동이 유대교 회당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바울이 그의 활동기 내내 유대인 회당만 돌아다녔다는 것은 바울의 메시지와도 잘 맞지 않는 해석이다.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할 때에는 성전이나 할례와 같은 주제들이 주요한 주제였을 것이지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주요한 활동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주제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이방인들을 주요한 선교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육체적으로 얽어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관심 주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 목적은 너무나 일관되고 분명하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육체와 얽혀진 관계들로부터 그들을 떼어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성실 가족

찬미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식탁가족들과 남산 벚꽃놀이를 갔다, 아이언맨이 자는 바람에 업고 오느라 튼튼가족 모두가 애를 썼다, 성실님에게 스파게티를 대접하면서 여러 교우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했다, 모두 맛있게 먹어서 감사했다, 새로운 4월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게의 변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주일 오후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성경 읽기와 기도에 힘쓰고 있다, 성실, 맑은, 소망님과 이른 아침에 윤중로를 걸으며 벚꽃을 즐겼다, 식탁가족들과 함께 맑은 날씨 속에서 봄바람을 느끼며 남산 산책으로 사귐을 가져서 좋았다, 특히 콜라, 자유, 혜윰의 도움으로 편안하게 남산을 오르내렸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며 가족을 칭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육체의 욕망을 택하지 말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을 택하여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을 따라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닌 보이는 사랑인 몸으로 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좋아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다, 성경통독반을 함께 하는 교우들에게 만두를 대접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드림 가족

드림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대가족 만남에서 사랑가족의 생명, 뿌리, 씨앗 등 젊은 교회식구들이 많아서 보기 좋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좋았다, 남산산책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테미스, 씨앗, 새롬님과 저녁도 함께 먹으며 교우들과 사귐을 가져서 좋았다, 긴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내 육체의 욕구도 함께 잘려 나가기를 바랬다, 하루에 6시간은 꼭 일을 하려고 한다, 욕심으로 '기도'에 자꾸 소홀했는데 기본부터 차근차근 몸에 익혀 나가야겠다, 봄나들이로 많이 걸으며 남산, 동대문 DDP와 황학동 풍물시장을 구경했다, '황제의 품격'으로 내가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다, 새벽기도회 후 뿌리님과 일대일 만남을 한 것이 좋았다, 보물님 회사 근처에서 일대일 만남을 했다, 김밥으로 교우들을 대접하며 즐거웠고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아 좋았다,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온유님과 안부도 주고 받으며 사귈 수 있어서 좋았다, 시편기도를 쓰면서 내 몸 자체가 악덩어리가 되어 살고 있는 것에 놀라서 죄의 고백을 하고 있다, 초록님과 일대일 만남을 한 것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며 사랑은 보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 몸의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사는지 육체의 행실로 사는지는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난다, 각 복음서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롭고 육체의 단련, 수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영, 육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대립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과의 대립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다, 기도를 통해 신체를 훈련해야겠다, 주일식탁가족 후식준비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소식 가족

즐거운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대가족 만남을 하고 나니 성실가족과 교회에서 만나는데 유난히 반가웠다, 남산의 벚꽃길을 걸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는 구름이 좋아하는 오뎅집에 들러 오뎅을 먹으며 즐거웠다, 성실, 광야님과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일대일 만남은 특별했다, 남산에서 유모차에서 잠자는 산들이를 고백이 끝까지 밀고 다니더니 교회에 와서 바로 골아 떨어졌다, 대가족 만남 후 카톡에 사진과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서 좋았다, 대가족 짝인 빌립님이 일대일 만남 때 가르쳐주신 호흡기도에 집중한 후 그 느낌을 나누었다, 몸이 힘들다고 거부할 때 그것을 뿌리치고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다, 찬미님과의 일대일 만남에서 매일 성경 읽는 방법과 그 일로 내가 변화된 점 등을 이야기했다, 바다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며 좋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영은 보이고 잡히는 영이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사랑하는 삶의 신체성을 받아들여 자기의 것을 풀어 사람들을 먹이고, 발을 씻기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내가 구현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 이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곧 영이 구현된 신체이고, 이 계명과 무관하게 사는 삶이, 육이 구현된 신체이다, 화장실 환풍기를 청소하겠다, 교우 2명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맑은 가족

독립군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청년부와 대가족만남을 통해 좀 더 가까워졌다, 가족을 생각하며 한의원까지 사랑의 수고로 동행해준 독립군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청년부 짝인 숨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다, 매년 성경통독반에 조금씩 참여했지만 올해는 거의 매일 참여하다 보니 느낌이 좀 달랐다, 나무님의 활약이 돋보인 청년부 만남이 즐거웠다, 청년들과의 만남에 감사하며 문자로 사귀고, 광야님께 감사문자를 하였다, 새벽집회에 참여하여 호흡기도하고 성경을 통독하며 예수님을 따라 몸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나의 악한 부분을 섬세히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청원하였다, 청년부와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됨에 감사했다, 젊은 청년들과의 풋풋하고 신선한 만남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사랑은 보이는 것이며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사랑은 없다고 말한다, 믿음도 보이는 것이고 소망도 보이는 것이며 사랑은 더더욱 보이는 것이다, 유채, 한결에게 안부문자를 하겠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내가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쓰고 집중하겠다, 빌립님께 감사선물을 하겠다, 식탁가족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화음 가족

신나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의 나누는 시간에는 "성찬 대접을 하면서 빛나는 불꽃 졸리님의 리드와 열정에 감사했고 모든 가족이 팀웍을 맞춰 일하는 것이 즐거웠다, 전세 관련 문제를 마무리하여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공동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 교회를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대가족만남의 여운이 남아 있는데 아모님이 관련 사진들을 홈피에 올려 주어 즐겁게 보았고 감사의 말을 홈피에 남기면서 예가 홈피로 소통하는 사귐의 즐거움을 실감했다, 새롬님께 일대일 만남을 준비한 내용 전체를 한 장으로 출력한 것을 선물 받아 일대일 만남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일대일 만남에서 배운 기도노트를 컴퓨터로 쓰는 작업을 시작했고, 시편 기도도 다시 쓰고 있다, 금식을 모두 지켜서 기분이 좋다, 남산으로 깜짝 꽃놀이를 가서 마음도 몸도 모두 봄이 오는 걸 느꼈다, 뷰티교실을 진행하면서 화음가족이 더욱 화음을 맞춰 잘 해내는 것 같아 좋다, 남산에서 인증샷도 찍게 되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하늘에서 받은 생명의 영으로 내 몸을 굴리겠다, 영이 구현된 육체와 육이 구현된 육체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말로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사랑 가족

진주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미리내님과 일대일 만남을 했는데, 남자분들과는 교류가 없어서 조금 긴장했으나, 편하고 즐거웠다, 전철목사님을 방문했다, 함께 캠퍼스도 걷고, 숨도 만나서 반가웠다, 소망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면서 열심히 묵상하고 악에 대해 민감해지며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아침기도로 그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참으로 고맙고 다행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요한복음은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계명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몸으로 하는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영과 육은 모두 신체성을 갖는다, 영이 구현된 육체가 '영'이고 육이 구현된 육체가 '육'이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육체가 육이 구현된 육이 되고 만다,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말씀 선언을 놀라운 선언이라고 한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포도 가족

새롬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주일 벚꽃 나들이하며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한가온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며,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했다, 대가족만남의 여운으로 더 행복한 마음으로 지낸 한 주였다, 화음님을 만나 사는 이야기 속에 믿음을 나누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식탁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웠다, 아이들 식사 준비를 신경 써서 하니 요리 시간이 즐겁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자세히 읽기 시간에는 "요한복음에서의 영과 육의 대립은 보이는 것의 대립이다, 성령을 따르든,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든 그것은 나의 삶 속에 구현된다, 나쁜 생각을 내쫓겠다, 교회에서 배우고 살아갈수록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눈에 확연히 보이는 것임을 느낀다, 말과 마음으로만 먹고 먹이는 사랑은 없다, 이번 주간 5일 동안 사랑의 실천을 계획하고 실행하겠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식탁가족들에게 남산 산행 편집한 것을 전달하겠다, 편집부 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새가족

드림가족 드림 황현미

봄이 오면 설레인다. 무채색이던 주변이 수채화 물감을 바르듯이 여기저기 물이 들고 향기도 피어난다. 따듯한 햇살 자체만도 기분이 좋아진다. 집 주변의 고양이와 비둘기들도 설레이기는 마찬가지인가 보다.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도 개막하고 올해는 여의도 윤중로, 남산, 저 멀리 거제까지 상춘객으로 걷기도 했다. 이번 주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텃밭 가꾸는 것도 기대가 된다. 해마다 오는 봄인데도 느낌이 다른 것은 그 봄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다. 연초에는 예상하지 못한 회사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괴로운 스토리를 쓰고 나쁜 말을 입에 담고 살았다. 스토리집회를 통해 매일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나의 삶을 굳이 내가 애써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등의 악한 생각과 나를 정당화하는 여러 핑계들을 멈추니, 괴로운 스토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현재도 회사 일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에 내 몸이 예전처럼 나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

가족모임도 개편이 되어 드림가족으로 8명이 함께 살고 있다. 1주기가 시작되어 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정기모임 외에 했던 가족들과의 사귐은 성찬준비 외에는 일대일 만남이었다. 현재까지 가족들과 만남이 평균 3회 정도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의 삶을 격려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가장 좋은 사귐인 것 같다.

교회의 권면사항이기도 하지만 나는 일대일 만남 장소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서로의 집을 가거나 집 근처의 까페, 직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약속을 하고 만나는 일이 봄만큼이나 설레는 것 같다. 미리내님 집에서 만남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최근에는 여의도에서 만나 벚꽃 핀 윤중로를 1시간 정도 걸었던 사귐도 즐거웠다. 일대일 만남으로 은석님 사무실도 가 보게 되었고 조이님과는 건대입구역 커피숍도 좋았다. 앞으로는 에스더의 학교근처, 보물의 직장근처에서의 만남도 이뤄질 것이다. 이러다 소망의 말대로 어울님과 일대일 만남을 위해 목포에 가는 날도 올 것 같기도 하다. 가족을 사랑하는데 있어 내 몸을 움직여 실천하는 가장 쉽고 기본이 되는 것이 일대일 만남인 것 같다.

식탁가족도 구름가족에서 구름의 엄마로 살게 되었다. 가끔 아침에 나는 출근한다고 내려가고 구름은 학교 간다고 오르다가 만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은 울컥해지며 '참 아들에게 무심한 엄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목사님의 특별연경반 강의를 듣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온 삶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새가족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에게 교우들, 새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혈연을 둔 또 다른 가족일 것이다. 한번도 피로 맺어진 인연을 끊어 본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테두리안에서 전진하다 후퇴하다를 반복하고 사는 것 같다. 그러니 사랑하며 사는 일에 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몸을 이끌고 살기 보다는 몸의 욕구에 질질 끌려 다니는 나를 볼 때가 더 많다. 그렇게 사는 것이 끔직히 싫어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으니 믿음의 길은 멀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더욱 먼 얘기인 것 같다. 예가교회로 산 지가 몇 년 후면 10년이 되는데 20년 후도, 30년 후도,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난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의 새가족으로 사는 가족모임과 식탁가족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겠다.

자녀양육모임 아웃도어

> 자녀 양육모임에서는 올해 첫 아웃도어를 3월 21일에 실행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외부 양육팀도 함께 할 계획으로 이번부터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첫 아웃도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양육모임에서는 3월 21일 금요일에 올해 첫 아웃도어로 분당의 잡월드를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의 아웃도어는 토요일에 하는데 토요일에 사람이 너무 많거나,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한 주제의 아웃도어는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학교에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웃도어를 하며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웃도어에는 외부 양육팀이 함께 할 계획인데 이번 첫 아웃도어부터 참여했습니다. 외부 양육팀은 어른 5명, 아이 7명입니다. 외부 양육팀까지 합쳐서 이번 아웃도어에 참여한 인원은 어른 5명, 어린이 18명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교회에 집합해서, 각자 차를 나누어 타고 분당의 잡월드로 출발했습니다. 23명의 인원이 승용차 4대에 나눠 탔고 자리가 꽉 찼습니다. 그래도 이동하는 차안에서 아이들은 인솔하는 어른들과 사귀며 금방 친해져서 이모라고 부르고, 아이들끼리도 재잘거리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요일 오전이라 그런지 분당으로 가는 길은 시원하게 뚫려서 1시간 정도만에 도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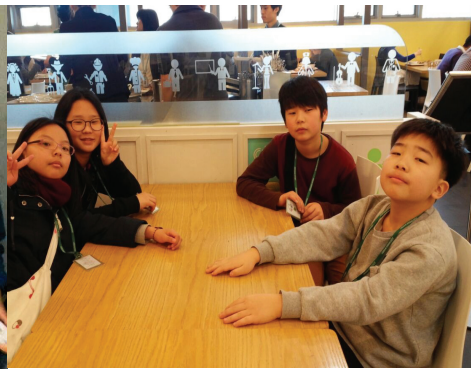
잡월드에 도착해서 단체 목걸이와 체험관에서 쓸 잡월드화폐를 받고 연령별, 성별로 나뉘어 체험을 했습니다. 양육모임 아웃도어에는 연령별, 성별로 아이들을 잘 섞어서 만들어 놓은 팀이 있는데 이번 아웃도어는 직업 체험인 관계르 연령별, 성별로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어서 체험을 했습니다. 5, 6학년은 청소년 체험관, 나머지는 어린이 체험관으로 가서 각자 수준에 맞는 즐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청소년관을 체험한 아이들은 4가지 정도의 직업을 체험했고 어린이관을 체험한 아이들은 잡월드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직업을 다 체험해봤습니다.

5시까지 체험을 하고 5시 30분에 교회로 출발해서 7시 20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막혀서 두시간 가까이 시간이 들었지만,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는 만리장성에서 주문하여 교회에서 모두 식사를 하고 8시에 평가회를 갖고 2014년 첫 아웃도어를 마쳤습니다.

평가회에서 아웃도어를 인솔한 어른들은 '아웃도어 하면서 인솔한 아이들과 친해져서 좋았다,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일정에 맞춰 잘 따라주어 좋았다, 아이들이 의젓하게 활동해서 기특했다, 첫 아웃도어라 아이와 떨어지는 것을 걱정했는데, 떨어져 있으니 아이들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 는 느낌들을 나누었습니다.

외부 양육팀까지 합쳐진 대규모 아웃도어를 자녀양육모임회원과 자녀들은 단단한 팀웍으로 잘 치러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예가 소식 & 공지

1. 지금은 사순절기이며,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기는 성회수요일인 3월 5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1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죽으신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좋아하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했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시다.

2. 사순절기 중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새벽기도회 : 5-7시, 가족모임별로 참여하며, 호흡기도를 포함하여, 주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쓰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의무참여 가족은 맑은가족입니다.

2) 사랑의 금식 : 3월 5일(수)-4월 19일(토). 예배에 참여하는 연령대는 모두 대상이며, 게시판을 참고해서, 3가지 중에 택일하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금식에는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금식한 끼니만큼 화해의 헌금으로 매주일 헌금합니다. 화해의 헌금은 공동체회원의 경우, 전액 교우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에 쓰이며, 공동체회원 외의 경우 전액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헌금으로 쓰입니다.

3) 성경통독반 : 3월 6일(목)-4월 15일(화), 성경통독반은 이번 주 화요일이 마지막 모임입니다.

4) 4월 17일 목요세족례 : 저녁 8시, 세족례 30분 전에 와서 준비모임에 참여 바랍니다.

5) 4월 18일 거룩한 금요일 예배 : 저녁 8시, 예배 30분 전에 와서 준비모임에 참여 바랍니다.

6) 4월 20일 부활주일예배 : 김경재 목사 초청설교, 부활주일에는, 4차 개정한 예배예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 오늘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당 구석 청소가 있습니다. 공동식사 후에 전체모임을 갖고 역할 분담하여 먼지 낀 구석 위주로 청소하겠습니다. 또한, 전체모임에서는 목요세족례와 거룩한 금요일예배 준비를 위한 역할분담도 함께 하겠습니다.

4. 특별연경반 마지막 집회가 대청소 후에 있습니다. 지난번까지의 강의는 자료실에 있으니, 불참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5. 1월 중에 있었던 스토리 집회의 강의가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 되었으니, 반복하여 듣고 익혀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좋은 스토리로 바꾸어서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6. 예가교회의 새로운 홈페이지에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산돌퀴즈에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산돌퀴즈는 예가교회의 교우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자를 매주 주일 추첨하여 시상합니다. 또한, 불편사항이나 요청사항은 '홈피관리자에게'라는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계좌로 헌금하신 교우들은 헌금 봉투에 이름, 보낸 날짜, 헌금명세를 적어 봉헌위원에게 내주십시오. 해외빈민구제 목적의 헌금으로 드리는 주일헌금도 매주 잊지 마시고 참여 바랍니다.

8. 부활주일인 다음 주 예배위원은 찬미, 희은님입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기도와 사랑의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은 준비모임에 1명이라도 지각 혹은 결석 시 모든 예배위원의 역할은 교역자가 맡게 될 것이므로, 늦거나 결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찬대접을 맡은 가족은 주방을 담당한 교우들도 개회예전은 필히 예배실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성찬대접은 학생부가 대접합니다. 4월 봉헌위원은 샤론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사무엘기하 11장 ~ 사무엘기하 15장
화	사무엘기하 16장 ~ 사무엘기하 20장
수	사무엘기하 21장 ~ 사무엘기하 24장
목	열왕기상 1장 ~ 열왕기상 6장
금	열왕기상 7장 ~ 열왕기상 10장
토	열왕기상 11장 ~ 열왕기상 15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